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7일 (음력 4월 3일) 목요일

광주·전남 지방선거 투표율 ‘빨간불’

집권여당 독주·5·18·정상회담에 묻혀 관심도 ‘뚝’

“주권 행사” 선관위-시민단체 투표율 올리기 안간힘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투표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와 5·18, 남북 정상회담 등 연이은 대형 이슈에 묻혀 선거 분위기가 뜸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은 제1회 76.1%를 시작으로 제2회 68.2%, 제3회 65.0%,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0% 등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높다.

그러나 오는 6월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광’과 탄탄한 당세(黨勢)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서 상당수 지역에서 맥빠진 선거전이 진행 중인데다 5·18 38주년을 이어 5월22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특히 투표 전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무관심이 우려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6일 “운동장이 크게 기울어 ‘내가 굳이 찍지 않아도...’라는 의식이 팽배할 경우 투표율이 광주 50% 전남은 60%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 정국 이후 국민 개인의 주권 의식이 한층 강화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자발적 투표자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깜깜이 선거’와 공천 잡음에 실망한 이들이 투표 무관심증으로 돌아서고 대형 이슈에 파묻힐 경우 투표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투표율 적신호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투표율 하락은 대표성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데 올인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손잡고 ‘유권자와 함께 달려요, 아름다운 선거로!’라는 문구와 함께 정책선거 사전투표, 투표일시와 방법 등이 담긴 홍보전단을 지하철 곳곳에 래핑했다.

한 플레이스인 광안마을과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홍보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문예회관에서 유권자의 날 행사도 가졌다. 광주지역 17개 청소년단체는 ‘모의투표 운동본부’까지 정식 발족했다.

전남도 선관위도 지역별, 계층별 유권자들이 육성 녹음한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를 라디오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택시운송조합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서포터즈단’을 구성, 다문화와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편의 서비스도 펼칠 계획이다.

목포에서는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체험행사를 열고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광양 무지개분수, 여수 빅오 쇼에도 투표 참여 메시지를 띄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여·야 각 후보들도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등을 통해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등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개천 투표가 무산되고 대형 이슈가 빼곡해 투표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와 교육감 선거도 있는 만큼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투표가 전체되어야 한다”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싸움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최근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 을 거론하며 비판하는데가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친 형과 형수에게 욕두문자생육을 한 것을 두고 형사 고소 운운 하는 것을 보니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라며 ‘공익성과 후보 검증 차원에서 그것을 공개하려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무엇으로 경기도인의 판단을 받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서력 자유한국당 홍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저질 네거티브와 동조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남긴 바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국노총 전남본부, 고석규 후보 지지선언

“전남교육 발전 이끌 역량·비정규직 상 처치유 기대”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5일 오전 11시 본부 의장단 및 상무집행위원 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남교육감 후보로 고석규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고석규 후보는 특정 교육주체의 교육감이 아닌 전남도민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뜻을 모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또 고 후보가 미래 인재를

키워 국가와 전남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사람중심, 포용교육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 예산 등 모든 문제를 소탕 할 수 있는 후보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남본부는 고 후보는 아직도 교육현장에 팽배해 있는 직종 간 차별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설움을 받는 분들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역설했다.

최남규 기자



최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최우수축제

제40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2018. 5. 16.수-5. 19.토 / 4일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사)진도관광진흥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제7회 진도개의 날 기념

2018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5.5.(토)~5.6.(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관 Jindo 진도군
후원 진도개명견화사업단

또 하나의 가족, 진도개는 내친구!